

목회칼럼 「 하나님은 모두 잊으셨다 」

마이클 웰즈가 쓴 <하늘의 제자도>에 나온 글입니다.

"깡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방망이로 마구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적대감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분노나 복수심도 볼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팔로 안아 주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자신이 당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복수심을 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잘못에 대한 기억이 말끔히 지워지면 그 잘못에 관한 복수심도 즉시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에 관한 기억을 지우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다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넘어짐을 기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은의 성도들은 정죄감과 거짓 감정에 얽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5월 합심기도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상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둘	예배 및 성경 공부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셋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넷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바울 복음 세미나가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물질과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❷ 모든 예배와 셀모임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셀리더 모임이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❸ 주보에 성경읽기를 하시고 말씀 기도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4셀 ▶ 다음 주 - 5셀

◆ 5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5/ 1	어린이주일
5/ 8	어버이주일
5/18~20	바울복음세미나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정우준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행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22일 21호

2022년 성은교회 표어
" 주여! 내게 상을 베푸소서 " (시 23:1~6)